

# 제천의 의병장 李康季의 衛正斥邪 의식과 문학에 대한 연구

姜玫求\*

## 目 次

1. 서론
2. 憤怒와 決然의 정서
3. 永訣과 當付의 슬회
4. 煽動의 理念과 기술
5. 마무리

## | 국문초록 |

雲岡 李康季[1858~1908]은 군사 운용과 전술의 전문가인 무관으로서 민비 시해 사건과 단발령을 계기로 倡義 舉兵한 의병장이다. 그는 경상북도 문경 태생이지만 제천으로 柳麟錫[1842~1915]을 찾아가 그의 문인이 되는 동시에 유인석 의병 부대의 유격대장으로 활약하였다. 또 李恒老[1792~1868]의 『華西集』 간행에도 적극 관여하는 등 학문 연찬에도 힘을 썼으니, 그의 강력한 무장 항쟁은 위정척사론의 이념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강년은 의병장으로서는 보기 드물게 다수의 詩文을 남기고 있고 그것들의 상당수는 그의 투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聞國變世禍, 漸至板蕩, 不勝憤激, 仍賦一律.』은 거병 즈음의 근심과 두려움, 육체적 고통과 투쟁의 의지가 진솔하게 토로된 작품이다. 『被擒時口號』

\* 경북대학교 한문학과 교수.

는 적에게 체포되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의연한 결기를 보여준다. 또 「囚在日憲兵所口號」는 헌병소에 구금되어 있으면서 쓴 시로, 구차히 살아남지 않을 것이며 죽어서도 항쟁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준다.

「告訣八域同志」는 옥중에서 전국의 동지들에게 영결을 고하는 글로, 거병의 계기, 무장 항쟁 기간, 戰績, 체포당한 경위, 사형에 직면한 심정, 투쟁의 이념을 기술하고 있다. 이 글에서 이강년은 반역자들이 충신과 선량한 사람들을 무고하게 살해하는 상황에서 양심의 격동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 거병의 원인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13년간 2차례 기병하였고 전투 횟수는 30여회, 전적은 왜적 100여명을 죽인 것이라고 하였다.

이강년은 인륜이 사라진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양심에 격동되어 거병하였으며, 존화양이의 의리를 위해 殉死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은 동지들에게 綱常을 돈독히 하라고 당부하였다. 이것이 이강년이 지닌 위정척사 의식이다.

『雲岡遺稿』에는 15편의 檄文類가 전한다. 그의 격문은 선명한 위정척사의 이념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그것들은 군사와 무기, 군자금 조달을 독려하는 격문, 伊藤博文을 통렬히 꾸짖는 격문, 일제의 앞잡이로 온갖 간악한 짓을 일삼는 一進會를 준엄히 꾸짖은 효유문, 각국의 영사관에 일제의 침탈을 고발하고 조국 해방의 타당성을 알리는 통고문, 군대의 기율을 알려 경계하는 글이다. 그중에서 募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격문으로서 전형성 갖는다.

핵심어 李康季, 雲岡, 衛正斥邪, 제천, 의병장, 무장투쟁, 煽動.

## 1. 서론

雲岡 李康季[1858~1908]은 무과에 급제하여 宣傳官이 되었고, 갑신정변 때 사직하고 낙향하였다가, 민비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단발령이 내려지자, 倡義 舉兵한 의병장이다. 그는 경상북도 문경 태생이지만 제천으로

柳麟錫[1842~1915]을 찾아가 그의 문인이 되는 동시에 유인석 의병 부대의 유격대장으로 활약하였다. 그는 武官으로서 군사 운용과 전술의 전문가였을 뿐만 아니라, 李恒老[1792~1868]의 『華西集』 간행에도 적극 관여하는 등 학문 연찬에도 힘을 썼다. 이항로는 위정척사론의 사상적 기초를 만들었다고 평가되는 인물이고, 유인석은 위정척사론을 이념적 기반으로 하는 을미의병 최고의 지도자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따라서 이강년의 강력한 무장 항쟁은 위정척사론의 이념적 토대 위에서 이루어졌다고 하겠다.

이강년의 저작과 생애, 의병 활동에 대해서는 기왕에 연구가 이루어졌지만,<sup>1)</sup> 그의 사상과 문학에 대한 분석은 매우 미미하다. 이강년은 강력한 무장 투쟁을 전개한 인물로는 보기 드물게 다수의 詩文을 남기고 있고, 그것들의 상당수는 그의 무장 투쟁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심도 있는 분석이 절실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강년의 시문 분석을 통하여 衛正斥邪論이 어떠한 양상으로 그의 이념적 토대로 작용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그가 기병하고 체포되고 사형당할 때의 심정을 노래하고 서술한 작품 분석을 통하여 그의 진솔한 정서를 규명하고, 군사의 징발과 군수품의 조달 및 승전을 목적으로 집필한 격문의 분석을 통하여 그 문학적 특징을 규명하고자 한다.

## 2. 憤怒와 決然의 정서

이강년의 문학 작품 중에는 擧兵 즈음의 심정을 노래한 시, 체포당할

1) 鄭濟愚의 『구한말 의병장 이강년 연구』(인하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具玩會의 『한말 의병장 이강년의 생애와 운강집』(『雲岡集』, 奈堤文化硏究會, 2007.)의 몇 편의 연구물이 제출되어 있다. 2018년 12월 19일에는 (사)운강 이강년 선생 기념 사업회 주관으로, 운강 '이강년 의병대장 순국 110주년 학술대회'가 개최된 바 있다.

때의 심정을 읊은 시, 옥중의 감정의 읊은 시가 있어 주목된다. 이들 작품에는 이강년의 분노와 두려움, 결연함의 정서가 녹아 있다.

다음은 거병 즈음의 심정을 읊은 작품이다.

### 나라의 변고와 세상의 재앙이 점차

흔란스러운 지경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격분을 견디지 못해 일몰을 짓다

십년간 영남과 호서에 감히 몸을 두었는데  
 지금 어이해 근심과 두려움이 병과 이웃했나  
 임금에게 보답할 때가 지금이라는 것을 아니  
 천지에 강상을 부지하는 일은 한 분께 있네  
 어떤 일이든 성패는 나로 말미암아 이르니  
 평생의 영욕이 마침내 누구 탓이던고  
 국가와 개인의 큰 슬픔 가장 해소하기 어려우니  
 오히려 원수의 하늘을 이고 부질없이 복수 다짐하네

聞國變世禍，漸至板蕩，

不勝憤激，仍賦一律。

十載嶺湖敢有身  
 今何憂懼病相隣  
 君親報義知今日  
 天地扶綱在一人  
 底事輸贏由我致  
 平生榮辱竟誰因  
 公私大慟最難泄  
 猶戴讐天空臥薪<sup>2)</sup>

위 시의 창작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십년간 영남과 호서에 감히 몸을 두었는데”라고 한 첫 구의 내용을 본다면, 1907년 의병을 재건하여 활동을 재개하기 즈음에 지은 듯하다.

이강년의 1896년 문경에서 약 300여명을 모아 의병 부대를 조직하여 안동관찰사 김석중을 처단하면서 무력 투쟁을 개시하였다. 김석중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한 공으로 안동부사가 되었다가, 행정제도 개편으로 안동부관찰사로 승진한 자이다. 그가 부임한 후 적극적으로 수행하려고 한 정책이 단발령이었고, 그것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해 일본군까지 불러 들였다. 이것이 안동의병을 결성하게 만든 원인이었다. 예안 의병대장 李中麟은 김

2) 『雲岡先生遺稿』, 1쪽.

석중에게 현상금까지 내걸었고,<sup>3)</sup> 도피하던 김상중은 상주를 거쳐 문경에 이르러 이강년의 의병에게 사로잡혔다. 이강년의 의병은 김석중을 총살한 후 불에 태웠으며 효수하였다고 한다.<sup>4)</sup> 또 순검인 김홍윤과 김인감 역시 효수하였다. 이처럼 이강년 의병은 조직되던 초기부터 매우 투쟁적으로 활동을 하였다.

이강년 의병은 3월에 제천의 유인석 부대로 들어가 유격장으로 임명된 후 더욱 격렬한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군기고를 습격하여 무기와 탄약을 노획하고 일본군을 추격하는가 하면 관군과 3일간 치열한 전투를 전개하였고, 단양·풍기·정선·영월·원주·평창을 넘나들면서 전투를 이어나갔으나, 1896년 8월 23일에 관군의 공세에 밀려 부대를 해산하였다. 이강년은 이후 1907년에 제천에서 다시 의병부대를 재건하기까지 10년간 은거하며 재기를 준비하였다.

1896년의 전투 기록에 의하면, 이강년은 두려움이 없는 지휘관이었다. 또 그가 남긴 글에서도 두려움의 흔적을 볼 수 없으니, 오직 이 시 한편에서만 “두렵다”고 진솔한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倡義日錄』을 검토해 보면, 그는 적의 습격과 전투에서 생사를 넘나들 정도의 치명상을 여러 차례 입었다. 군대 해산 후 군사 수십 명과 가족을 이끌고 소백산 속 단양의 金采洞으로 숨어들었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백리 길을 걸어가기도 하였다고 하니, 그 고초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렇게 10년을 숨어사는 동안 정신적으로는 근심과 두려움이, 육체적으로는 질환이 심각한 상태로 되었다. 이 시의 1·2구 두 구절은, 문헌 기록상, 이강년이 유일하게 두려움과 고통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나 그의 두려움은 생사를 넘나드는 전투의 경험에서 만들어진 것이기에,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두려움과는 차원

3) 신진희, 『1896년 안동부관찰사 김석중과 안동의병의 대결』, 『대구사학』, 제117집, 대구사학회, 2014.

4) 김정섭, 『항회시일기』, 『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 선인사, 2013.

을 달리한다. 당시의 대다수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이란, 일신과 가문에 닥친 위협에 대한 것에 불과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임금에게 보답하기 위하여 당장 펼쳐 일어나기로 결심하였다. 임금에게는 ‘天地綱常의 扶持’라는 상징적이며 실질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임금을 옹위하는 것은 결국 강상을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이강년은 성공과 실패는 모두 자신에게 연유하기에, 평생의 영광과 욕된 결과도 다른 사람을 탓할 수 없다고 말하였다. 『창의일록』을 살펴보면, 이강년은 처음에 하인을 시켜 포수 10명을 불러들여 총검과 쇠몽치를 나누어 주었는데, 그 쇠몽치는 그의 백부가 삭주의 원으로 재직할 때 만들었던 것이라고 한다. 이강년은 그들을 이끌고 道胎 시장에서 연설하고 선동하여 일시에 300여 인을 모아들였으며, 종제 李康壽가 출연한 200냥으로 군량미를 구하였다고 한다. 쇠몽치로 무장한 포수와 시장에서 불시에 모집한 대중으로 정규군인 관군과 침략군인 일본군을 상대로 어떻게 승리를 거둘 수 있단 말인가? 탈영병이 속출하였고 약속하였던 응원군은 오지 않았으며 다른 義陣과 협력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즉 이강년 자신을 제외한 주변 상황이 열악하기 그지없었기에, 그 모든 것은 실패의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그렇게 해서 1차 거병은 비록 작은 전승을 올리기도 하였으나 온갖 고초를 겪고 실패하고 말았다. 그러나 이강년은 외적 조건은 성패를 좌우하는 절대적 요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으며, 스스로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걱정이나 두려움보다도 더 심리적으로 해소될 수 없는 것은 나라와 그로 인한 큰 슬픔이었다. 그는 큰 슬픔을 해소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장 투쟁 밖에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강년은 오합지졸로 정규군과 전투를 벌이는 것이 얼마나 무모한 일인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부질없는 복수의 다짐’이라고 씩씩하게 말하며 시를 맺음하고 있다.

이강년의 작품 중에는 전투 중 잡힐 때 쓴 시와 옥중에서 지은 시가 있

어서, 죽음을 앞둔 그의 결연함을 볼 수 있다.

다음의 시는 이강년이 전투 중 포로로 잡힐 때 지은 시이다.

<b>체포될 때 입으로 불러 지음</b>	<b>被擒時口號</b>
탄환이 너무나도 야속하게	丸子太無情
복사뼈에 맞아 가지 못하네	踝傷止不行
만약 가슴이나 배속을 맞았다면	若中心腹裏
욕되지 않게 하늘나라 이르렀을 텐데	毋辱到瑤京 <sup>5)</sup>

이강년이 사로잡힐 때의 정황은 다음의 『창의일록』에서 비교적 상세히 알 수 있다.

7월 2일에 청풍 鵲城에 이르러 적과 교전하였는데 공이 탄환에 맞아 사로 잡혔다.

이때 적이 근처에 모여 站兵들이 공을 추격하여 영월에서부터 청풍까지 이르렀는데, 나루터의 배를 끊어 강을 건널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 그래서 공이 永春의 산길을 경유하여 綾江洞을 향하려고 소금 장수의 배를 얻어서 강을 건너 작성에 주둔하였다. 마침 장맛비가 내리는데 적이 갑자기 들이닥치니 공이 반나절 동안 힘써 싸우다가 적의 탄환이 왼쪽 복사뼈를 맞춰 마침내 적에게 잡혀 서울로 압송되었다. 이때 都先鋒 河漢瑞와 아군 7명이 전사하였는데, 공이 마을 사람들을 돌아보며 “나는 이미 사로 잡혔으니 할 수 있는 일이 없소. 전사한 사람들의 시신을 잘 매장하여주기 바라오.”라고 말하였다.

크게 적을 꾸짖고 굴하지 않았다.<sup>6)</sup>

5) 『雲岡先生遺稿』, 3쪽.

6) 『雲岡遺稿』, 216쪽. “六月四日, 至清風鵲城, 與賊合戰, 公中丸被執. 時賊聚近處, 諸站兵追公, 而自寧越至清風, 絕津船, 使不得通. 公由永春山路, 將

『창의일록』의 기록에 의하면 이강년 의군은 1907년 의병을 재조직하여 충청도·강원도·경상도를 넘나들며 40여회의 전투를 치렀고 그 중 20여회의 승리를 거두었으며,<sup>7)</sup> 수백 명의 적을 사살하였다고 하니, 관군과 일본군이 이강년 체포에 열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

위의 시는 口號로 지어졌는데, 구호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즉흥적으로 읊는 것을 말한다. 적의 탄환에 맞아 부상당한 몸으로 사로잡히면서 즉흥으로 시를 지었다면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가 체포될 때 지은 시를 누군가 대신 받아 적었을 리 만무하기에, 추후에 이강년이 당시의 감상을 회억하여 썼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다.

몹시 다급한 상황에서 지은 것이기에 가장 짧은 시 형식인 오언절구를 취하였다. 이강년은 “탄환이 무정하다.”라고 하였으니, 총알이 자신을 명중시켜 안타까웠던 것이 아니라, 하필 복사뼈를 맞추어 걸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그렇다고 죽지도 못하게 만든 것이 야속하게 느껴졌다. 그는 부상당하여 적에게 끌려가 치욕을 당하느니, 차라리 가슴이나 배에 명중되어 죽는 편이 더 좋았겠다고 말하고 있다. 적에게 체포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의연한 결기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라고 하겠다.

다음 작품도 역시 구호인데, 헌병소에 구금되어 있을 때 지은 것이다.

### 일본 헌병소에 갇혀 있으면서

입으로 불러 지음. 두 수.

오십 세에 죽음을 결판 짓는 마음  
지금 어찌 구차히 살 마음 있으랴  
군대에 맹세하고 두 번 나와 끝내 복수하기 어려우니

囚在日憲兵所口號 二首

五十年來判死心  
到今寧有苟生心  
盟師再出難復

向綾江洞，得鹽商船以渡，駐次鵲城。適值霖雨，賊兵猝至，公力戰半日，丸中左踝，竟爲賊所執，傳送至京城。【陣聞】○是役，都先鋒河漢瑞，及我軍七人戰死，公回視洞人曰：‘吾旣被集，不能有爲。望厚瘞戰亡人形骸。’【見公年譜】大罵賊不屈。”

7) 정제우의 상거서 참조. 다만, 『창의일록』 기록과 이강년의 진술은 차이가 있다.

지하에서도 오히려 칼을 무릅쓸 마음 남아있으리	地下猶餘冒劍心
더디고 더딘 여름날 사람보기 어려운데	遲遲夏日見人稀
교활한 오랑캐 놈 말마다 계책 찾아보라네	猾虜隨言覓括機
이 몸은 다만 尊王攘夷의 大義 깊어지고	身上直擔尊攘義
당당히 죽음으로 나가니 슬프다고 하지 마라	堂堂就死莫云悲 <sup>8)</sup>

이강년은 체포되던 7월 2일부터 서울의 平理院으로 이송되던 8일까지 제천에 수감되어 있었으니, 위의 시는 그 때 지은 것으로 보인다. 위 시에 서는 체포되던 당시에 보였던 허망함과 절망감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그는 이미 죽음을 결심하였고 구차히 살아남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 그러나 2차례 거병하여 복수를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련이 없을 수 없었기에, 죽어서도 항쟁하겠다는 마음이 사라지지 않으리라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2번째 수에서 이강년은 다소의 여유를 보인다. 첫째 구에서 “더디고 더딘 여름날에 사람이 드물게 보인다.”라고 하였으니, 주변을 살피고 정황을 파악할 정도로 이성을 찾았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그에게 살려주겠다고 집요하게 회유를 하였지만 그는 이미 죽기로 결심을 하였기에 흔들림이 없었다. 이강년은 자신의 죽음이 존왕양이의 대의를 실현하는 것에 다름 아니기 때문에 슬퍼할 일이 아니라고 사람들에게 당부까지 하였다.

다음 작품도 감옥에서 지은 口號인데, 제천에 수감되어 있을 때는 ‘헌병 소’라고 장소를 밝히고 있으니, 이것은 서울로 이감된 뒤에 지은 시인 듯하다.

<b>감옥에서 입으로 불러 지음</b>	<b>獄中口號</b>
성공과 실패를 말해 무엇하리	成敗何須說
종용히 말한 대로 실천했네	從容如踐言

8) 『雲岡先生遺稿』, 3쪽.

충심으로 길러온 징험이니  
임금의 은혜에 감동해 운다네

丹心培養驗  
感泣聖朝恩<sup>9)</sup>

위의 시는 그 정조로 보아 죽음을 앞두고 지은듯하다. 이강년은 무장 항쟁이 실패로 끝났지만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는 따질 의미가 없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다만 떨쳐 일어나 실천하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은 일거에 촉발된 것이 아니고 충성심으로 길러져 실현된 것이었기에, 임금의 은혜에 감읍한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이는 단순히 임금 1인에 대한 충성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囚在日憲兵所口號』에서 밝힌 바와 같이 ‘尊王攘夷’의 다른 표현인 셈이다.

### 3. 永訣과 當付의 슬회

이강년은 죽음을 앞두고 가족에게 한 편의 편지와 전국의 동지들에게 한 편의 글을 남겼다. 다음의 글은 종제인 李康壽에게 영결을 고하는 편지이다.

從弟 君弼에게 영결하는 글을 남김. 戊申, 重陽.

그대와 작별한 지 벌써 한 돌이 되었으니, 꿈속의 벗인들 어찌 남쪽으로 달려가지 않으랴? 서늘한 가을 기운이 어느새 나무에 깃들이니, 이때에 백모님의 기력이 절기에 혹 손상은 없으신가? 부모를 모시어 보살피는 몸이 건승하고 온 가족이 모두 큰 탈을 모면하였는가? 걱정되고 걱정되는구나.

종형은 薄德하여 뜻을 펴지 못하고 마침내 사로잡혀 지금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 만약 세속의 정으로 본다면 슬프지만 나의 마음에 있어서라면 탄탄하게 돌아가는 듯하다. 사람이 백년을 살면서 누군들 한번 죽지 않으랴? 利欲의 마당에서 아귀다툼을 하다가 죽은 뒤에도 이름이 나지 않느니, 차라리

9) 『雲岡先生遺稿』, 4쪽.

나라를 위해 원수에게 복수하다가 칼날에 죽어 천추에 영원히 찬사를 받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지금 천지가 혼돈스러운 때를 당하여 스스로 힘써 가문을 지키는 계책으로는 자제를 가르쳐 부지런히 글을 읽게 하는 일보다 좋은 것이 없다. 책을 읽는 가운데 반드시 묘리가 있나니, 지금 밝게 징험하는 것은, 남으로 달아나고 북으로 달리는 ‘士子’로 이름 하는 자는 비록 수없이 많은 곤경과 다급함을 겪어 앞에는 나루가 놓여 있고 뒤에는 산이 가로막혀도 반드시 법도를 잃지 않지만, 무식한 사람은 자신의 부모를 버리고 자신의 아내를 잊고 광분하여 질주하다가 실패한 자취가 서로 이어진다는 사실이니, 그대만 홀로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가? 또 이익을 취하는 소굴은 폐해의 근원이니, 沙店을 견어치우는 것이 좋을듯하다. 말이 여기에 미치니 힘쓰고 힘쓸지이다. 대충 적고 모두 말하지는 못한다.<sup>10)</sup>

이강년이 가족에게 영결하는 글을 종제인 李康壽에게만 보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의 편지만이 현전하기에, 죽음을 앞두고 가족에게 심정을 고하는 글로서 대표성을 지닌다.

감옥에서 작성된 글이기에 편폭이 매우 짧지만 편지의 형식을 빠짐없이 갖추고 있다. 먼저 꿈에서도 보고 싶은 그리움에 대하여 서술하고 백모의 건강과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있는데, 간결하지만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진심이 녹아 있다. 이어서 자신의 근황에 대하여 “바닥하여 뜻을 펴지 못하고 마침내 사로잡혀 지금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극도로 짧은 문장으로 사형에 당면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상황이 세

10) 『雲岡先生遺稿』, 『遺談從弟君弼 戊申 重陽』, 25~26쪽. “訣君已歲周, 夢魂豈不南馳? 秋涼在樹未諳, 茲辰伯母主氣力無或損節? 省履珍勝, 渾眷俱免大何否? 懸念懸念. 從兄, 德薄所執未申, 終焉被擒, 今將受死. 若以俗情看之憾矣, 在吾心坦坦然如歸. 人生百年, 孰無一死? 與其紛拏於利欲之場, 身後無聞, 曷若爲國復讐, 死於鋒鏑, 永有辭於千秋? 今當天地混淪, 自強保家之策, 亦無過於教子弟, 勤讀書. 讀書之中, 必有妙理, 今乃明驗者, 南竄北走之士子爲名者, 雖百艱千急, 前津後嶺, 必不失尺寸, 而無識之人, 舍其親, 忘其妻, 而狂奔疾走, 覆轍相尋, 君獨不聞不知耶? 且利窟害之源, 沙店撤罷恐好. 言止於此, 勉之勉之! 餘漏萬掛一.”

속의 감정으로 본다면 슬프다고 하겠지만, 의를 위해 죽기에 마치 집으로 돌아가듯[視死如歸]<sup>11)</sup> 당연하고 편안하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강년은 의를 지키기 위해 실천하다 죽는 것이기에, 슬픔도 두려움도 없었다. 더욱이 그는 이욕을 추구하다가 죽어서 이름이 나지 않는 것보다 나라를 위해 원수에게 복수하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여 역사에 영원히 이름이 남는 편이 낫지 않겠냐고 반문하였으니, 자신의 죽음이 갖는 가치를 확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는 혼란한 세상에서 가문을 지키는 계책은 자제를 잘 가르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학문을 해야 하는 이유는 당시와 같이 士인들이 갈피를 못 잡고 허둥지둥하며 수없는 곤경을 겪고 장애에 직면하면서도 법도를 잃지 않게 하려면 학문의 힘이 있어야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또 이익을 추구하는 영업 행위도 중단하라고 권고하였다. 이는 종제에게 보내는 글이지만 가족 모두에게 하는 마지막 당부였다.

다음의 글은 전국의 동지들에게 영결을 알리는 글이다.

#### 팔도의 동지들에게 영결을 고함

국운이 불행하여 간사하고 흉악한 자들이 권력을 독점하여 원수 오랑캐와 결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임금을 팔고 나라를 팔고 임금을 꺾박 능욕하고 국모를 시해하더니, 지금은 조정을 가득 채운 흉악한 반역자들이 마음을 기울여 왜적에게 붙여 임금을 협박해 강토를 제멋대로 넘겨주었고, 심하게는 종묘사직을 전복하고 인륜을 없애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 저 극도로 흉악하고 극도로 기만하는 원수 왜적이 조정을 빼앗아 차지하고, 세금과 병력을 제멋대로 취해 사용하니, 이것은 도적의 常套라서 오히려 憤痛할 따름이지만, 저들이 이른바 교수형법으로 처형하겠다는 이유가 사람을 많이 죽이고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그렇

11) 視死如歸: 태연자약하게 난리에서 의롭게 죽는 것을 의미한다. 『史記』, 『蔡澤列傳』에서 “군자는 義로 난리에서 죽나니, 죽는 것을 마치 자기 집에 돌아가는 것처럼 여긴다.[君子以義死難, 視死如歸.]”라고 한 말에서 유래하였다.

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놈을 여럿 죽인 것을 저들은 “사람을 많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왜놈의 군용 자금을 탈취한 것을 저들은 “백성들의 재산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간악한 자와 표독한 반역자가 충신과 선량한 사람을 무고하여 살해하는 일은 예부터 있었기에 참으로 많이 따질 필요도 없습니다만, 지금 나라 안에서 무고한 백성들이 날마다 형벌을 당하는 것을 보니, 아! 차마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강년이 양심에 격동되어 참을 수 없어서 병신년 이래 13년간 두 차례 의병의 깃발을 들어 피를 뿌리며 적을 토벌하여 30여 차례 크게 싸워 100여명의 왜적을 죽였습니다. 그러다가 불행히도 금년 7월 2일에 탄환이 다 떨어지고 길이 막혀 탄환에 맞아 사로 잡혀 오랫동안 옥중에서 옥을 당하다가 지금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존화양이의 의리에 이 몸을 바치니, 비록 하루를 더 사는 것이 그만두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도 이제는 끝이 났기에, 제가 장차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부디 바라는 바는 치열한 적의 기세에 꺾이지 말고 강상을 더욱 돈독히 하여 피를 뿌리고 와신상담하여 기회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로잡혀 죽음에 임하여 분통을 이기지 못해 衷心을 드러냅니다. 사방을 바라보고 두 번 절합니다.<sup>12)</sup>

윗글에서 이강년은 먼저 조국이 처한 상황을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그가 지니고 있는 현실 인식이 다름 아니다. 그는 일본을 ‘원수 오랑개’로 규정하였고, 그들과 결탁한 국내의 권력자들을 ‘간사하고 흉악한 자’·‘흉악

12) 『雲岡先生遺稿』, 『告訣八域同志』, 453~454쪽. “國運不幸, 奸凶擅柄, 締結讐夷. 初則賣主賣國, 逼辱君父, 戕害國母, 今則滿朝凶逆, 傾心附賊, 脅迫至尊, 擅許疆土, 甚至覆宗社, 滅人倫之境. 噫! 彼極惡極謫之讐賊, 奪據廊廟, 錢穀甲兵, 任意取用, 此盜賊之例習, 猶爲憤痛而已, 彼所謂處絞刑法, 多殺人命, 勒奪民財之說, 抑有不然者矣. 殺害倭酋級數, 彼謂之多殺人命, 奪取倭酋之軍錢, 彼謂之勒奪民財, 奸惡毒虜之誣殺忠良, 從古然矣, 固不足多辨, 而見今宇內黑窠無辜元元, 日被形役. 嗚呼, 不忍言也! 康季, 秉彝所激, 按住不得, 自丙申以來十三載, 再舉義旗, 沫血致討, 大戰三十餘, 殺得賊酋百餘級, 不幸於今年六月四日, 矢盡道窮, 中丸而被擒, 久辱獄中, 今將受死. 身殉尊攘之義, 雖加一日, 愈於已者, 今焉已矣, 吾將奈何? 萬望僉君子, 勿爲賊勢虜焰所挫, 益敦綱常, 沫血嘗膽, 以俟來復. 康季, 被虜臨死, 不勝痛憤, 揭示衷曲, 四望再拜.”

한 반역자'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한 행위는 임금과 나라를 팔고, 임금을 꺾박 능욕하고 국모를 시해하였으며, 종묘사직을 전복하고 인륜을 없앤 것이라고 하였으니, 그에게 있어서 일제 침략자와 결탁한 반역자들이 자행한 가장 심각한 짓은 인륜을 없앴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어서 자신에게 교수형이 선고된 부당함에 대하여 논변하였다. 자신에게 교수형이 선고된 이유는 다수의 인명을 살상하고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였다는 데에 있었다. 이에 대하여 이강년은 자신은 무고한 인명을 살상한 것이 아니라 왜놈을 죽인 것이며, 백성의 재산을 탈취한 것이 아니라 왜놈의 군용 자금을 탈취한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이강년은 이어서 자신이 거병하게 된 이유와 무장 항쟁 기간, 저간의 戰績, 사로잡히게 된 경위, 사형에 직면한 심정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그는 반역자들이 충신과 선량한 사람들을 무고하게 살해하는 상황에서 양심의 격동을 참을 수 없었던 것이 거병의 원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13년간 2차례 기병하였고, 전투 횟수는 30여회, 전적은 왜적 100여명을 죽인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13년간 무장 투쟁을 전개한 것이 아니라, 1896년 2월부터 8월까지 7개월, 1907년부터 5월부터 1908년 7월까지 14개월이 무장 투쟁을 했던 기간이다. 그러나 그가 도피해있던 기간이라고 해서 결코 마음 놓고 안락하게 지낸 것이 아니며, 온갖 고초를 견디며 재기를 준비하였으므로, 그 역시 투쟁의 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사로잡힌 날은 7월 2일이며 탄환이 다 소진되어 길이 막힌 상황에서 탄환에 맞아 사로 잡혀 옥에 갇혀 능욕을 당하다가 사형을 당하게 되었다고 경위를 기술하였다. 이어서 자신의 죽음이 갖는 의미는 존화양이의 의리에 몸을 바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그의 동지들이 대부분 위정척사 파이기에 이념적 동질성을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지들에게 당부하는 말은 치열한 적의 기세에 꺾이지 말고 강상을 더욱 돈독히 하고 와신상담하여 기회를 기다리라는 것이었다.

정리하자면, 이강년은 인륜이 사라진 상황에 대하여 심각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양심에 격동되어 거병하였으며, 존화양이의 의리를 위해 殉死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남은 동지들에게 강상을 돈독히 하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것이 이강년이 지닌 위정척사 의식이라고 하겠다.

#### 4. 煽動의 理念과 기술

『雲岡遺稿』에는 「檄告各道列邑文」·「再檄告文」·「檄告文」·「召檄」·「討倭檄文」·「檄伊藤博文文」·「通告各國領事館文」·「通告文」·「曉告宣諭委員文」·「曉諭一進會文」·「士卒誓戒文」·「通告蓬坪士民文」·「示史內面執綱及各洞頭尊」·「示永東各坊曲頭尊」·「揭示」와 같은 15편의 檄文類가 전한다.

‘檄文’은 적을 꾸짖고 회유하거나 군사와 물자를 모아 거병하거나 전투를 독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다. 격문은 外戰이나 內亂을 포함한 다급한 상황에서 戰術의 일환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자마다 수준의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차분하게 집필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글을 지을 수 있는 문필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글 한편으로 적의 사기를 저하시켜 심리적 타격을 주는 한편 아군의 사기를 높이며 군사와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형식에 효과 높은 표현의 구사가 어우러져야 한다. 그리고 격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理念이다. 정의로운 전쟁은 없으나 명분 없는 전쟁은 없다. 그러나 명분은 침략자에게만 타당하고 정당한 것이기에 그에 대항하는 격문에서 침략의 부당성을 논파하여야 한다. 동시에 그 논리는 침략을 물리치기 위한 거병의 정당성으로 적용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념은 격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겠다.

이강년의 격문은 선명한 위정척사의 이념을 기반으로 삼고 있다.

이강년은 군사와 무기, 군자금 조달을 독려하는 격문, 국권 강탈의 중심 인물인 伊藤博文을 통렬히 꾸짖는 격문, 일제의 앞잡이로 온갖 간악한 짓을 일삼는 一進會를 준엄히 꾸짖은 효유문, 각국의 영사관에 일제의 침탈을 고발하고 조국 해방의 타당성을 알리는 통고문, 군대의 기율을 알려 경계하는 글 등을 지었다. 그중에서 격문으로서 전형성을 갖는 것은 募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1907년 4월에 재차 거병한 이강년 의진이 당면한 급선무는 무기의 조달과 군사 모집이었다. 급한 대로 무기는 1차 거병 때 모아 둔 것으로 무장하였으며, 이후 원주의 무기고를 습격하여 상당량의 무기와 탄환을 탈취하였다.<sup>13)</sup> 이강년 의진의 모병과 군수품 조달은 『창의일록』에서 산견되는데, 다음은 그 일례이다.

선봉장을 시켜 執綱 金東泰를 엄하게 다스리게 하였다. 赤城 平村에 이르러 포수의 인원수와 병기의 수량을 물어보았으나 김동태가 대답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다스리고, 바로 김동태를 召募將으로 差任하여 밤에 포수 다섯 사람을 모집해 陣으로 나가게 하고, 權都正을 불러들여 벌금 110량과 무명 7필을 납입케 하였으며, 金商摯를 把守將으로 삼았다. 절의 중을 불러들여 화포와 화약·自起黃 등의 물건을 들이도록 독촉하였으며, 倭學校를 수색하여 행장과 의복 등의 물건을 사졸에게 나누어 주었다.<sup>14)</sup>

위의 기록을 보면, 이강년은 경유지나 주둔지에서 군수물자를 조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잘 알 수 있다. 그는 마을의 유지로부터 군자금을

13) 『雲岡集』, 360쪽. “冒雨夜. 入大平橋, 逢尹將, 詳問知狀, 卽入原州邑, 散軍機庫, 一邊召募, 不期日, 募數百人, 領得彈丸銃子, 埋于培陽山緊密處.”

14) 『雲岡集』, 138~140쪽. “令先鋒, 嚴治執綱金東泰. 至赤城平村, 問砲丁兵器多少, 金巨令不受, 故治之, 卽差東泰召募將. 夜募砲五人赴陣, 招權都政, 納罰錢一百十兩, 白木七匹, 以金商摯爲把守將. 招寺僧, 督納火砲十柄火藥自起黃等物, 且搜覓倭學校, 行裝衣服等物, 給士卒.”

헌납케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학교 등에서 행장이나 의복 등을 탈취하여 사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하니, 그들의 군수 물자가 얼마나 열악하였는지 잘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절에서 화승총과 화약, 自起黃으로 불리던 성냥 등을 징발하였다는 사실이다. 화승총조차 절실하였던 의병의 열악한 武裝 상황을 잘 알 수 있다. 병력 조달 역시 군수물자 조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아서 경유지나 주둔지에서 즉석 모병이 이루어졌고 특히 포수의 모집에 주안점을 두었으니, 이강년 부대에서 포수는 주요 병력이었다.

다음에서 보이는 「각도의 列邑에 고하는 격문」은 양력으로 1907년 8월 21일에 작성된 것이다. 『倡義事實記』의 다음 기록에 의하면, 이즈음에 여러 의진이 제천읍으로 모여들었고 이강년 의진도 제천으로 가서 합류하였다.

鎮衛隊가 새로 일어나니 산포수로서 모병에 응한 자들이 매우 많았으며, 趙東教·吳敬默·丁大武 등의 여러 진이 잇따라 제천읍으로 들어왔다. 공도 가서 합류하여 安成海를 中軍으로 삼고 李漢應을 後軍으로 삼았으며 공은 대장 자리를 사양하고 軍師로써 일을 보았다. 都領長 劉秉先이 남의 간사한 꾀임을 듣고 군사들에게 소요를 일으켰다. 이와 같은 죄는 오히려 효수를 해야 하지만 새로 모집하였기 때문에 대략 문책만 하였다.<sup>15)</sup>

제천에서 여러 의진의 연합체가 이루어져 의병의 사기가 올랐는데, 『창의사실기』에 “민군호와 기일을 정하여 충주의 적을 치기로 하니, 이때 여러 장수들이 모두 나가 싸우기를 원하였다. 이에 격문을 관동 및 4郡[제천·청풍·단양·영춘]으로 띄웠다.”<sup>16)</sup>라고 기록되어 있으니, 이러한 배경에서 일련의 격문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5) 『雲岡集』, 365쪽. “鎮衛隊新起, 山砲應募甚衆, 趙東教·吳敬默·丁大武等諸陣, 連入堤邑. 公往會之, 以安成海爲中軍, 李漢應爲後軍, 公則遜避將位, 以軍師視事. 都領長劉秉先聽人奸誘, 闖成軍擾, 罪當梟示梟, 以新募故略加警責.”

16) 『雲岡集』, 136쪽. “與閔肯鎬約期攻忠州賊, 時諸將楊輝太甚可慮, 遂傳檄關東及四郡.”

또 하나 격문 작성의 배경으로 고려할 만한 것은 고종이 이강년에게 내린 거병 밀지이다.

고종은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되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을사늑약의 부당성을 호소하게 하였는데, 이것이 발각되었고, 伊藤博文은 이완용을 사주하여 내각회의에서 고종의 양위를 강요하게 만들었다. 이러한 사건이 배경이 되어 고종은 이강년에게 거병하라는 밀지를 내렸다고 한다. 밀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 나의 죄가 크고 악이 가득 차 황천이 보우하지 않으사, 이런 연유로 강한 이웃나라가 틈을 엿보고 반역하는 신하가 권세를 농락하여 사천년 종묘 사직과 삼천리강토가 하루아침에 오랑캐 땅이 되었다. 생각하면 나의 한 울 실낱같은 목숨이야 아까울 것이 없다. 그러나 생각건대, 종묘사직과 만백성은 이에 애통하다. 선전관 이강년을 都體察使로 삼아 七路로 보내니 良家の才德을 겸비한 사람들로 각각 의병을 일으키게 하라. 소모장에 임명하니 인장과 병부를 직접 새겨 從事하라. 만약 명을 좇지 않는 자가 있다면 관찰사와 수령들을 먼저 베고 파직해 내치고 處分하라. 경기 진영의 군사와 나는 사직을 위해 순사할 것이다. 詔書を 비밀리에 내리니 그리 알고 거행할 일이다.<sup>17)</sup>

1906년 겨울에 沈相薰<sup>18)</sup>이 이강년을 찾아와 貂皮 갓옷과 이불가지를 주며 위로하였는데, 이강년은 그것들을 사양하며 “대감께서 비천한 저를 보잘 것 없다 여기지 않으시고 이렇게 후한 물건을 주시니 비록 극도로 황감하오나 사졸들이 춥고 굶주려 거의 죽을 지경이인데, 康季 혼자만이 이 물건을 사용한다면 천지의 신이 어찌 저를 벌주지 않겠습니까? 감히

17) 『雲岡集』, 363~365쪽. “勅令. 嗚乎! 予罪大惡盈, 皇天不佑. 由是強隣視讐, 逆臣弄權, 四千年宗社, 三千里疆土, 一朝爲犬羊之域. 惟予一縷之命, 猶不足惜, 惟念宗社生靈, 茲以哀痛, 以宣傳李康季爲都體察使, 勸送七路, 以良家才子, 各立義兵, 拜爲召募官, 自刻印符從事矣. 若有不從命者, 觀察守令先斬罷黜而處分. 畿堡一縷, 殉於社稷. 璽書密下, 以此知悉舉行事. 光武十年七月 日. 御璽.”

18) 沈相薰: 개항기에 이조판서·선해청당상·궁내부특진관 등을 역임한 관료.

사양합니다.”라고 하였다. 이 말은 들은 심상훈은 크게 감탄하여 다시 쌀과 무명을 실어 보내고 서울로 돌아와 고종에게 그에 대하여 아뢰었다. 고종은 그를 가상히 여겨 비밀 칙령을 내렸는데, 이 밀지는 심상훈을 통해 전달되었고, 밀지 낭독을 들은 사졸들은 결사항전을 다짐하였다고 한다.<sup>19)</sup> 고종의 밀지 하사에 대한 이야기는 이강년의 의병 활동에서 가장 劇的이다. 고종의 밀지와 「檄告各道列邑文」의 선후 관계는 좀 더 면밀히 고증해봐야 할 문제이나, 「檄告各道列邑文」에 부기된 작성 일자를 신뢰한다면, 이 글은 고종의 밀지를 받고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군사들 앞에서 공개하고 낭독하였다는 고종의 밀지가 「檄告各道列邑文」을 비롯한 여타의 글에 인용되지 않는다는 점은 하나의 의문점으로 남는다.<sup>20)</sup>

다음에서 이강년의 격문 중 가장 대표적 작품인 「檄告各道列邑文」의 분석을 통하여 이강년 격문의 특성을 규명해보도록 하겠다.

#### 각도의 列邑에 고하는 격문. 1907년 8월 21일.

아, 애통하다! 오히려 차마 말로 하라? 역적 놈들이 나라를 제멋대로 하여 은밀히 禪位케 하려는 계책을 결정하여 흉악한 칼날로 임금을 협박하고, 北轅의 수처에 이르도록 모의하여 억지로 조약을 맺고, 우리 국권을 강탈하며 頒敕文으로 우리들을 구속하며 승냥이와 이리가 끊임없이 먹어 삼키니, 백만의 백성들은 목숨이 물이 새는 배에 탄 듯 절박하다.

욕심은 계곡처럼 채우기 어렵고 팔도의 산천은 형세가 가을 낙엽보다도

19) 『雲岡集』, 360~361쪽. “七月沈判書相薰, 奉密勅傳諭, 公奉書感激, 涕下如雨, 召諸將卒, 列于前, 伏讀解說, 諭之以義, 士卒莫不增氣願效死.

去年冬, 公入培陽山休兵, 沈判書相薰, 親率家奴, 持貂裘衾枕而勞之曰: ‘敝物雖不腆, 願爲將軍冬月之具, 少酬爲國之勞.’ 公辭而不受曰: ‘台監不卑卑賤, 厚貺及此, 雖極皇感, 而願士卒凍餒幾死, 康季獨御此物, 皇天后土詎不罰? 余敢辭.’ 沈公嘖嘖嘉歎, 卽輸以米布. 入京師, 見上奏其事, 上嘉之, 亟下密勅.”

20) 吳瑛燮은 「고종 측근 심상훈과 제천 지역 의병운동과의 연관 관계」(『한국근현대사연구』, 2005년 겨울호, 제3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에서 고종 밀지 조작의 가능성을 일축하였으나, 具玩會는 「한말 의병장 이강년의 생애와 운강집」(『雲岡集』, 奈堤文化硏究會, 2007.)에서 고종의 밀지가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가벼우며 종묘가 진동해 놀라고 궁궐이 처량한데, 山林川澤을 제 재산인 양 여기고 부세와 백성을 자기의 물건처럼 보는구나. 머리를 깎고 복색을 바꾸니 사람과 짐승의 경계는 다시 여지가 없다. 왕비를 시해하고 임금을 모욕하니, 갑오년과 을미년 원수들과 오히려 같은 하늘을 이고 살겠는가? 백성을 옮겨 바다를 건너게 하려는 흉계는 粘罕이나 鐵木 때도 없었던 일이다.<sup>21)</sup>

격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적을 꾸짖는 것인데, 『檄告各道列邑文』에서는 먼저 국내의 ‘반역자’를 적으로 한정하고 그들을 論罪하였다. 반역자의 죄상 중 첫 번째는 고종의 양위에 대한 것이다. 반역자들이 무력으로 임금을 겁박하여 ‘北轅의 수치’에 이르게 했다고 하였는데 ‘왕의 수레가 북쪽으로 끌려가는 치욕’이라는 의미의 ‘北轅의 수치’는 금나라 군대가 남하하여 송나라 수도 汴京을 함락시키고 송의 徽宗과 欽宗을 체포하여 북으로 돌아간 일을 말하는 것이기에, 讓位를 代稱하는 전고로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이강년은 고종의 양위가 갖는 부당성과 치욕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오랑캐에게 황제가 체포되어 끌려간 전고를 사용함으로써 격문의 冒頭에서 선동성의 극대화를 꾀하였다. 그리고 것처럼 간악무도한 일을 자행한 반역자들을 승냥이와 이리에 비유하는 한편 국권을 강탈당한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물이 새는 배에 탄 형국’이라고 비유함으로써 事勢의 긴박함을 강조하는 한편 독자들의 형상 사유를 활성화하였다.

이어서 반역자들의 매국 행위를 ‘욕심은 계곡처럼 채우기 어렵다.’고 표현하였으니 표면상으로는 평범한 서술로 보이지만, 이는 用事を 원용한 것이다. 춘추 시대 끝나라의 대부 羊舌鮒가 태어났을 때, 그의 어머니가 “이 아이는 호랑이 눈에 돼지 입을 가진 데다 매처럼 두 어깨가 솟았고 소

21) 嗚呼, 慟矣! 尙忍言哉? 逆虜, 專擅邦家, 陰決內禪之計, 凶鋒脅迫君父, 謀致北轅之差, 勒約條而攘吾國, 頒敕文而箝我人, 豺狼荐食, 百萬生靈, 命迫漏船. 谿壑難充, 八域山川, 勢輕秋葉, 七廟震驚, 三內淒冷. 山林川澤, 認作渠資材, 賦人視若己物. 毀形變服, 人獸之關, 無復餘地, 弑妃辱主, 甲乙之讐, 尙戴一天? 若夫移民渡海匈計, 乃粘罕鐵木所無.

의 배처럼 옆구리가 불룩하니, 산의 계곡은 채울 수 있어도 이 아이는 만 족시킬 수 없으리라. 필시 뇌물 때문에 죽으리라.”라고 말하였는데, 뒤에 邢侯와 雍子가 토지를 다툰 때 이 소송을 심리하면서 옹자에게 딸을 받고 그의 손을 들어주었다가 형후에게 살해당하였다.<sup>22)</sup> 그러므로 반역자들을 끝없는 탐욕으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양설부에게 비유한 것이다.

이어서 반역자들의 악행을 열거하였다. 먼저 반역자들은 국가의 疆域과 부세 및 백성을 제 물건처럼 여긴다고 성토했었다. 강역과 부세와 백성에 대한 권리는 국왕에 귀속되는 것이니, 반역자들이 임금을 제거하고 그 권리를 차지했다고 논죄한 것이다. 그리고 그에 못지않게 심각하게 인식된 것은 斷髮令과 양복의 도입이었다. 정부에서는 1895년에 단발령을 발령하여 민중들의 심한 반발과 저항에게 불구하고 강력하게 추진하였다. 민중들은 단발과 조선의 멸망을 동의어로 인식한 측면이 있다. 특히 지방으로 갈수록 단발에 대한 반발이 강하였기에 소위 갑오개혁이라는 명목으로 단행되었던 단발령은 대중을 선동하는데 매우 좋은 소재였다. 또 하나 당시 倡義의 정당성을 표방할 때 빠질 수 없었던 것이 을미사변으로 일컬어지는 민비시해사건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나라를 잃었다는 사실을 실감케 하고 두려움을 증폭시키기 위해 더 이상 이 땅에서 살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 땅의 민중들이 강제로 해외 이주되고 있으니, 이는 粘罕이나 鐵木 때도 없던 일이라고 비난하였다. 粘罕은 금나라의 장수 完顏宗翰의 본명이며, 鐵木은 원나라 태조의 어릴 적 이름인 테무진[鐵木眞]을 지칭하니, 고려를 압박하고 침략하였던 오랑캐들도 하지 않았던 일이 자행되고 있다며 위기감을 고조시켰다.

하늘이 이미 미워하니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 한번 죽기를 마음먹고 성토했으니 누가 도성에 사람이 없다고 말하는가? 우레처럼 한밤에 대포 소리 울리

22) 『國語』, 『晉語8』, 『春秋左氏傳』, 昭公 14年.

고 더욱 기특하게도 군인 중에 절개를 위해 죽는 이가 있었다. 그것은 진실로 제 몸을 돌이켜 반성해보면 거의 깨달을 수 있으리니 처지를 바꾼다면 모두 그렇게 하리라. 도리어 갈수록 더욱 포악해져 하늘을 쏘니 마침내 반드시 패망하여 처참히 죽게 될 것을 알 수 있다.

아! 노예처럼 비굴하게 아침하는 것은 오히려 한나라의 公卿 중에도 있었지만 간악한 심사는 어찌 모두 ‘女眞의 參軍’인가? 날개가 이루어지고 발톱과 이가 날카로워지며 맥락이 두루 퍼지고 줄기가 깊어져, 임금을 적에게 넘겨주어 기꺼이 사나운 호랑이의 佞鬼가 되고, 왜와 결탁하여 영화를 도모하고 교활한 토끼의 굴을 넓게 열었다.<sup>23)</sup>

이강년은 “하늘이 이미 미워하니 사람마다 죽일 수 있다.”라고 公布하면서 반역자 처단의 정당성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서울의 항쟁 소식을 전하며 투쟁을 독려했다. 지방의 민중들은 서울의 상황과 정부의 처사에 크게 실망하고 있었다. 서울은 치욕적인 매국의 조약이 맺어지고 임금이 능욕되고 국모가 시해된 현장이며 매국 도당들이 호의호식하고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강년은 서울에서 일어났던 무장 항쟁을 언급 하였으니, 그것은 1907년 8월 1일 대한제국의 군대가 강제 해산되자 이에 불복한 병사들이 무장 봉기한 사건을 이른다. 이강년이 언급한 ‘기특하게도 절개를 위해 죽은 군인’은 朴昇煥을 지칭한다. 그의 자결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그의 자결에 격동된 군사들이 일본군과 장렬히 전투를 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때 해산된 군인들의 일부가 의병에 투신하여 그 투쟁의 수준을 한층 높였다는 점이다. 『창의일록』에서 “7월 23일 나라의 변고를 듣고 통곡한 뒤 목숨을 걸고 적을 치기로 맹서하고 병든 몸을 끌고 제천으로 가서 윤기영·이만원 및 원주 鎭衛隊와 동시에 함께 일어났

23) 天既厭矣，人得誅之，決一死而舌戰，孰謂輦轂下無人？雷半夜而砲聲，尤奇，編伍中死節，渠苟反躬而自省庶悟，易地則皆然。顧乃去益暴而射天，可知終必敗而塗地。噫！奴顏婢膝，尙有漢朝公卿，奸肚逆腸，胡皆女眞參軍？羽翼成而爪牙利，脈絡遍而蔓延深，以主予敵，甘作猛虎之倡，結倭圖榮，廣開狡免之窟。

다.”<sup>24)</sup>라고 한 기록이 그와 같은 사실을 증명한다.

이강년은 박승환과 같은 처지라면 누구나 그와 같이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순절의 필연성을 강조하였다. 반대로 반역자들은 반드시 패망하여 처참히 죽게 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이치상으로써 그렇지만 그들이 자연 소멸되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이강년은 노예처럼 비굴하게 아첨하는 사람은 한나라의 公卿 중에서도 있었지만 반역자들의 간악한 심사는 모두 ‘女眞의 參軍’이라고 개탄하였다. ‘여진의 참군’이란 간신의 대명사인 秦檜가 죽었을 때, 그가 금을 도왔기에 史官이 ‘女眞參軍事秦檜卒.’이라고 기록한 것에서 유래한 말이니, 일본을 돕는 매국노를 비유한다. 그들을 짐승에 비유한다면 이미 날개가 달리고 발톱과 이가 날카롭게 된 격이고, 식물에 비유한다면 줄기가 널리 뻗어나간 것과 같다고 경계심을 드러내고 있다. 그들은 임금을 왜적에서 넘겨주었고 佞鬼 노릇을 하여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동포를 해치게 만든다고 비난하였다. ‘佞鬼’는 호랑이에게 물려 죽은 사람의 혼백이 호랑이의 앞잡이가 되어 다른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게 인도한다는 惡鬼이니, 반역자를 창귀에 비유함으로써 민중들이 이해하기 쉬게 만들었다.

아! 우리나라는 소중화의 문명과 열성조의 배양으로 지극한 정치가 향기롭기에 한·당·송·명나라의 규범을 계승하였을 뿐만이 아니다. 참된 유학자들이 함께 洙泗洛閩의 연원을 충분히 경험하였다. 중국이 몰락하고 또 커다란 열매 하나가 나뭇가지에 겨우 맺혔다. 슬프게도 우리 백성들은 죄 없이 암흑천지의 이런 참혹한 지경을 당하였다. 天運은 순환하니 누군들 죄가 있는데 도망갈 수 있으랴? 사람의 마음이 분노하니, 극도로 굶허지면 반드시 퍼지게 된다는 것을 안다.<sup>25)</sup>

24) 六月十四日, 聞國變痛哭, 誓死討賊, 扶病向堤川, 與尹基榮李萬源等及原州鎮衛隊, 同時俱起.

25) 猗! 我本朝小中華之文明, 列聖朝之培養, 至治馨香, 非徒漢唐宋明之軌轍. 眞儒比竝足徵洙泗洛閩之淵源. 自神州之淪歿. 又碩果之結梢. 哀我蒼生之無辜, 遽遭

이강년은 우리나라가 小中華의 문명을 지니고 있으며 역대로 높은 수준의 정치적 경험을 축적하여 중국 정통 왕조의 규범을 계승하였으며 이 땅의 유학자들이 洙泗洛閩<sup>26)</sup>으로 불리는 유학과 성리학의 연원을 충분히 계승하였다고 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문화와 학문적 수준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하였다. 그는 중국은 명나라 때 이미 망하였으니 이제 우리나라만이 유일한 문명의 결정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나라를 ‘碩果’에 비유하였다. 『주역』 『剝卦 上九』에서는 “큰 과일은 먹히지 않는다.[碩果不食.]”라고 하였다. 다섯 개의 겹가 모두 陰인 상태에서 맨 위의 효 하나만 陽인 것을 碩果로 비유하였으니, 하나 남은 陽의 기운이 외로워 보이지만 결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뜻이다. 이는 위정척사파 이념의 요체라고 하겠다.

소매를 건어 붙이고 봉기하니, 하나라의 1旅[500人]로 우임금의 舊業을 기약할 수 있고, 치마를 찢어 밭을 싸매고 가서 초나라의 세 집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장차 보리라. 초야에서 廉頗와 李牧을 일으키니, 金精이 엄숙하고 북풍이 차갑다. 유럽에서 韓世忠과 岳飛를 만나니, 갈의 기운이 하늘을 찌르고 남두성은 자색으로 빛난다. 月支의 두개골로 술잔을 만드니, 불원간에 원수를 깨끗이 쓸어내 버릴 터이고, 董卓의 배꼽에 불을 붙이니, 나라를 광복하는 것이 무슨 어려움이 있겠는가? 장안의 부로들은 漢官의 威儀를 기쁜 마음으로 보고, 順昌의 깃발은 송나라 왕실의 基業을 부흥케 한다.

무릇 우리들 충성과 의리로 모집에 응한 사람들 중에 누가 강개하게 나라에 보답할 마음이 없으랴? 고래와 새우를 모아 함께 받아들여 계책을 모두 실행하였고 골말바닥과 물고기를 취사선택하여 미련을 모조리 잊었다. 管仲이 아니었다면 오랑캐의 옷을 입었을 터이고, 淖齒를 주살하니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정이 있었던가?<sup>27)</sup>

黑宰之斯慘. 天運循環, 孰有罪而幸道? 人情忿憤, 知極屈而必伸.

26) 洙泗洛閩: 洙泗는 공자가 제자들에게 강학하던 곳에 있는 洙水와 泗水로, 공자와 맹자를 지칭하며, 洛閩은 송나라의 학자 程顥·程頤 형제가 살던 洛陽과 朱熹가 살던 閩中을 이른다.

몹시 현학적인 내용으로 이루어진 위의 단락은 위정척사와 격문의 전형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하나라의 1旅로 우임금의 구업을 기약할 수 있다.”는 말은, 하나라가 羿況의 난으로 國脈이 40년 동안이나 끊어졌다가 소강 때에 이르러 비로소 옛 문물을 회복하고 중흥을 맞게 되었다는 고사를 원용한 것이다.<sup>27)</sup> 또 “치마를 찢어 발을 싸매고 가다.”는 『여씨춘추』의 고사를 원용한 말로, 먼 길을 다급하게 가느라 발의 피로와 통증을 줄이기 위해 치마를 찢어 발을 싸맨다는 뜻이며,<sup>28)</sup> 이어지는 “초나라의 세 집이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장차 보리라.”라는 말은 전국시대 말기에 楚懷王이 秦나라에 들어갔다가 끝내 돌아오지 못하자 초나라 사람들이 진나라를 원망하였는데, 楚南公이 “초나라에 비록 세 집만 남아 있어도 진나라를 멸망케 할 것은 분명히 초나라 사람들이리라.”<sup>30)</sup>라고 한 말을 원용한 것이다. 역사에서 극도의 劣勢로 원수를 갚고 舊土를 회복한 일화를

27) 投袂揭竿，可期夏一旅之復禹，裂裳裹足，將見楚三戶之亡秦。起頗牧於草野，金精肅而北風寒。遇韓岳於儒林，劍氣衝而南斗紫。飲頭月氏，掃清不遠，燃臍董卓，匡復何難？長安父老，喜見漢官之威儀，順昌旌旗，中興宋室之基業。凡我忠義應募之士，孰無慷慨報國之心？合鯨鰈而并容，計策畢舉，擇熊漁而取舍，係戀都忘。微管仲難免左袵矣。誅淖齒何限右袒乎？

28) 하나라의 우 임금이 죽은 후 30여 년 만에 羿況의 난이 일어났다. 예작의 난이란 后羿와 寒況의 난을 이르니, 하나라 때 有窮을 다스리던 활의 명수 羿가 하나라의 3대 임금 太康을 몰아낸 후 仲康을 세우고 정권을 독단하였다. 그 후 예의 신하 한착이 다시 예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하였고 한착의 아들 奭가 제5대 임금인 相을 시해하였다. 이에 상의 아들 少康이 5백 명의 군사로 오를 멸망시키고 나라를 회복 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라의 제6대 왕이다. 그때 소강은 겨우 1成的 토지와 1旅의 군사밖에 없었기에 중원을 회복하는 일이 하늘을 오르는 것과 같았는데, 한 사람의 舊臣 靡가 있어 망한 나라의 나머지를 수습하여 우 임금의 구업을 계승할 수 있었다.

29) 『呂氏春秋』, 『愛類』에서 “초나라의 公輸般이 높은 구름사다리를 만들어 송나라를 공격하려 했는데, 墨子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 노나라에서 출발하여 치마를 찢어 발을 싸매며 밤낮을 쉬지 않고 가서 열흘 만에 郢에 도착하였다.[公輸般爲高雲梯，欲以攻宋。墨子聞之，自魯往，裂裳裹足，日夜不休，十日十夜而至於郢.]”라고 한 데서 온 말이다.

30) 『史記』, 『項羽本紀』, “楚雖三戶，亡秦必楚也.”

예시한 것이다.

“유림에서 韓世忠과 岳飛를 만나다.”라는 말에서, 한세충은 남송 때의 명장으로 금나라와의 전쟁과 반란군을 토벌하는 데에 큰 공을 세웠으며, 秦檜가 충신 악비를 무함할 때 악비를 변호한 인물이니,<sup>31)</sup> 儒林에서 한세충이나 악비처럼 출중한 士人이 창의에 호응하여 의진에 참여해 줄 것을 독려한 말이다. “초야에서 廉頗와 李牧을 일으키니 金精이 엄숙하고 북풍이 차갑다.”는 말도 앞의 말과 맥락이 동일하다. 廉頗와 李牧은 전국시대 조나라의 명장이니 초야에서 그와 같이 걸출한 인물이 지원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金精은 兵亂을 주관한다는 太白星의 별칭이니, 신명도 도와준다는 의미이다.

이어서 원수의 처절한 응징 의지를 몇 개의 용사로 표출하였다.

“月氏의 두개골로 술잔을 만든다.”는 말은 한나라 때 흉노가 월지왕을 격파하고 그의 머리로 술잔을 만들었다.”<sup>32)</sup>는 이야기로, 원수를 처절하게 응징한다는 비유이다. 이어지는 “동탁의 배꼽에 불을 붙이다.”도 동일한 비유이다. 이는 역사에서 “董卓의 시체를 시내 거리에 내놓았는데, 그때 날씨가 한창 무더웠다. 동탁은 본래 비대하여 몸의 기름이 땅바닥으로 흘러내렸다. 시체를 지키는 병사가 동탁의 배꼽에 불을 붙이니, 며칠간 꺼지지 않고 탔다.”<sup>33)</sup>라고 한 역사 일화를 원용하여 원흉을 처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원수를 응징한 이야기는 역사 속에 허다하지만 이강년은 위의 2가지 이야기가 가장 강렬하다고 여겼던 것이다.

그와 같이 반역자를 응징한다면 결국 광복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그래서 “順昌의 깃발은 송나라 왕실의 基業을 부흥케 한다.”고 하였다. 이는 順昌에 침입한 金兵을 격파한 劉錡의 고사를 원용하여 조선 왕조의 부흥을 비

31) 『宋史』, 『韓世忠列傳』.

32) 『史記』, 『大宛列傳』.

33) 『後漢書』, 『董卓列傳』.

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국의 광복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각오가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곰발바닥과 물고기를 취사선택하여 미련을 모조리 잊었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맹자』에서 “물고기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곰발바닥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없다면 물고기를 버리고 곰발바닥을 취하겠다. 삶도 내가 원하는 것이고 義도 내가 원하는 것이지만, 이 두 가지를 모두 얻을 수 없다면 삶을 버리고 의를 취하겠다.”<sup>34)</sup>라고 한 말을 원용한 것이다. 그리고 “관중이 아니었다면 오랑캐의 옷을 입었을 터이다.”는 『논어』에서 “管仲이 없었으면 내가 오랑캐처럼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옷깃을 왼쪽으로 여미었으리다.”<sup>35)</sup>고 한 말을 원용한 것이다. 맹자의 捨生取義論이나 공자의 華夷論이 위정척사파의 이념과 실천에 중요한 논리로 작용하였음을 여기에서 재확인할 수 있다.

위의 글은 “淖齒를 주살하니 지지하는 사람들이 한정이 있었던가?”라는 말로 일단락하고 있는데, 요치는 제나라의 반역자로 충신 왕손가에게 처단 당하였으니,<sup>36)</sup> 이 격문에서는 반역자의 철저한 응징 없이는 광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역사적 실례를 들어 각인시킨 것이다.

34) 孟子曰：“魚，我所欲也，熊掌，亦我所欲也，二者，不可得兼，舍魚而取熊掌者也。生亦我所欲也，義亦我所欲也，二者，不可得兼，舍生而取義者也。”

35) 微管仲，吾其被髮左衽矣。

36) 제나라 湣王 때에 연나라의 명장 樂毅가 제나라를 공격하여 함와 卽墨만을 남기고 국토의 대부분을 장악하였고, 제 민왕도 부하 淖齒에게 살해되었다. 이때 제 민왕을 모시던 王孫賈가 임금의 행방을 놓치고 집으로 돌아오자, 그 모친이 “네가 아침에 나갔다 늦게 돌아오면 나는 문에 기대 기다리고 네가 저녁에 나가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동구 밖에서 기다렸다. 네가 지금 임금을 섬기면서 임금이 계신 곳도 모르면서 집으로 돌아온단 말이냐.”라고 깨우쳐주자, 왕손가는 대중을 이끌고 요치를 공격해 죽이고 왕자 法章을 찾아 임금으로 세우고 함를 근거지로 삼아 연나라에 대항하였다. 이때 제나라 왕족 田單은 죽목에서 결사항전하면서 反間計를 써 악의를 파면시키고, 1천여 마리의 소를 앞세워 연나라 진영을 공격하여 대승을 거두어 제나라의 70여 성을 수복하였다.(『史記』, 『田單列傳』.)

山川草木도 응당 적개심을 품으니, 天地鬼神이 어찌 순리를 도울 이치가 없겠는가? 어찌 다만 한때의 무공이라? 실로 만고 중화의 명맥을 부지한 것이니 의당 각각 노력하여 후회하는 지경에 이르지 말지어다.

모든 상과 벌은 산화와 같음이 있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하여 포고한 뒤에 혹여 명령을 어기고 도망하거나 태만한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적당과 매한 가지이니, 단연코 병사를 출동시켜 먼저 토벌할 것이다. 이미 사전의 기미에 어둡다면, 비록 후회한들 미칠 수 있겠는가? 말은 여기에 그치니, 의당 잘 살피보리라 생각한다.<sup>37)</sup>

격문의 마지막 단락에 해당한다. “산천초목도 응당 적개심을 품으니, 천지귀신이 어찌 순리를 도울 이치가 없겠는가?”는 두보의 “만방의 백성들 관군을 응원하니, 한 번 북소리에 사기 올라 당해낼 이 없네.”<sup>38)</sup>라는 말을 원용한 것으로, 의진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의진의 승리는 필연의 이치라라는 것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의진에 참여할 것을 독려하면서 상벌을 분명하게 시행하고 군령을 엄격하게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 내용이 이 격문의 근원적 목적에 해당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이강년의 격문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매우 걱정적이지만 자신의 감정을 부각시키기보다는 대중들의 보편적 분노를 객관적으로 전하는 형식을 띠고 있다.

둘째, 적을 매국 반역자로 적시하는 한편 그 죄악성을 나열하되, 사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 지나치게 구체적인 기술은 선동성을 약화하기 때문이다.

37) 『雲岡先生遺稿』, 『檄告各道列邑文 丁未 七月 十三日』, 30쪽. “山川草木, 應含敵愾之情, 天地鬼神, 豈無助順之理? 奚但一時之武功? 實扶萬古之華脈, 宜各努力, 毋至噬臍. 凡諸賞罰, 有如山河. 如是盡情布告之後, 有或違令違慢之人, 是乃賊黨之所歸, 斷當移兵而先討. 既昧先機, 雖悔何及? 言止於此, 想宜照亮.”

38) 『寄岳州賈司馬六丈巴州嚴八使君兩閣老』, “萬方思助順, 一鼓氣無前.”

셋째, 쉬운 내용과 난해한 내용을 적절히 섞어서 글을 구성하였다. 이는 광범위한 독자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식인층을 의식하여 현학적인 내용을 상당수 포함시켰다.

넷째, 복수와 응징의 의지, 광복의 필연성을 반복하고 강조하였다.

다섯째, 황제의 밀지를 받은 의병장답게 伊藤博文을 준엄히 꾸짖고 一進會를 효유하며 각국의 영사관에 침략의 부당성을 알리는 글을 썼다. 또 군사들에게 軍律을 엄격히 시행할 것을 공고하였다. 이들 글은 召募 檄文과 달리 매우 평이한 글로 작성되었다. 이들 글의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한다.

## 5. 마무리

우리 역사에는 항쟁의 상징으로 거론되는 몇 개의 지역이 있는데, 제천을 그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Daily Mail』의 극동 특파원으로 우리나라에 파견된 영국인 기자 맥켄지(F.A. Mckenzie)는 『대한제국의 비극(The Tragedy of Korea)』에서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금년[1907] 늦여름까지만 해도 제천은 중요한 지방 도시로서 인구가 2,3천 명 정도에 이르렀고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이룩한 평야에 그림처럼 자리를 잡고 있었다. 그 곳은 고관대작들이 즐겨 찾는 휴양지로서, 마치 영국의 휴양지 배스(Bath)나 첼트넘(Cheltenham)과 같은 곳이었다. 대부분의 가옥은 으리 으리했고 기와집도 많았으니 확실히 부유한 도시였다. 의병이 작전을 개시했을 때 그 일부는 제천의 맞은편 산을 점령했다. …… 일본군은 제천을 보복의 본보기로 삼기로 했다. 온 마을을 불태우기로 한 것이었다. 일본군들은 불길을 돌우어 가면서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질과 관아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 나는 이제까지 그토록 심한 참사를 결코 본 적이 없었다. 한 달 전만 해도

사람들이 붐볐고 풍요로웠던 마을이 이제는 검은 잿더미밖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벽·기둥·장독, 그 어느 것도 성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기저기에는 값나가는 물건을 찾기 위해 잿더미를 뒤적이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부질없는 것이었다. 이제 제천은 지도상에서 없는 마을이 되었다.<sup>39)</sup>

Mckenzie가 보았다는 제천의 참상은 이강년 의진이 전투를 하던 때의 상황이었을 수도 있다. Mckenzie가 촬영한 당시 제천의 사진을 본다면 그의 보고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일본이 제천을 본보기로 삼아 완전히 파괴한 것으로 제천 지역의 무장 항쟁이 얼마나 극렬했는지를 알 수 있다. 학계에서는 이강년의 전투 기록이 과장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강년의 치열한 전투는 오히려 기록에서 누락된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점을 참작하여 실증적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외침이 빈번하였기에 격문도 적지 않게 창작되었으며 수준 높은 작품도 속출하였는데, 이강년의 격문류는 우리 문학사에서 한 자리를 내주어도 손색이 없는 것들이다.

이강년의 격문류는 선전과 선동의 목적이 다분하기 때문에 그것의 창작 유포 역시 전술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가 체포되고 수감되고 사형될 때도 시와 글을 지어 남긴 것 역시 전술적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들 시문 역시 독자를 격동 선동하는 힘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의 가열 찬 투쟁은 衛正斥邪라는 강력한 이념적 기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이다. 이강년의 위정척사 이념을 준화양이라는 수구적 한계를 돌파하고 ‘인간다움’과 ‘참가치’의 수호를 위해 목숨 바쳐 항쟁하도록 만든 기저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가 있다.

39) F.A. Mckenzie 저(1908), 신복룡 역(1999), 『폐허가 된 제천』, 『대한제국의 비극』, 181쪽, 집문당.

◆ 참고문헌

- 李康季, 『雲岡集』, 奈堤文化硏究會, 학민문화사, 2007.
- 具玩會, 「한말 의병장 이강년의 생애와 운강집」, 『雲岡集』, 奈堤文化硏究會, 2007.
- 김정섭, 「향회시일기」, 『국역 경북지역 의병자료』, 선인사, 2013.
- 신진희, 「1896년 안동부관찰사 김석중과 안동의병의 대결」, 『대구사학』, 제117집, 대구사학회, 2014.
- 吳瑛燮, 「고종 측근 심상훈과 제천 지역 의병운동과의 연관 관계」, 『한국근현대사 연구』, 2005년 겨울호, 제35집, 한국근현대사학회, 2005.
- 鄭濟愚, 『구한말 의병장 이강년 연구』, 인하대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1992.
- F.A. Mckenzie 저(1908), 신복룡 역, 「폐허가 된 제천」, 『대한제국의 비극』, 집문당, 1999.

투고일 2020. 1. 31 심사시작일 2020. 2. 24 게재확정일 2020. 3. 12

*Abstract*

---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Wijung Chuksa(Protect Righteousness and Expel wickedness, 衛正斥邪) and Literature of the Righteous Armies general Lee Kang-nyeon(李康季) in Jecheon

Kang, Min-koo

Ungang(雲岡) Lee Kang-nyeon(李康季)[1858~1908] was an expert in military operations and tactics as a military officer and he was a the righteous Armies general who raised an army in the cause of justice for Queen Min's assassination and the ordinance prohibiting topknots. Although he was born in Mungyeong, Gyeongsangbuk-do, he went to Jecheon to visit Yoo In-seok (柳麟錫)[1842~1915] to become his literary man and also served as a captain of Yoo In-seok's righteous army. He also worked hard at study including being actively involved in the publication of Lee Hang-ro(李恒老)[1792~1868]'s 『Hwaseojib(華西集)』, so Lee Kang-nyeon's strong armed resistance was based on the ideological basis of Wijung Chuksa(Protect Righteousness and Expel wickedness, 衛正斥邪).

Lee Kang-nyeon leaves a large number of poetry and prose as a rare case for the righteous Armies general, and many of them are closely related to his struggle.

『He heard the nation change and the world dizzy, so gradually became confused, and he did not stand the enragement and wrote a poem(聞國變世禍, 漸至板蕩, 不勝憤激, 仍賦一律.)』 is a work in which worries, fears, physical pain and the will of struggle are truly expressed around the time of raising an army. 『Poetry when he was arrested by an enemy(被擒時口號)』 shows a resolute impetuosity even in the desperate situation of being arrested by an enemy. In addition, 『Poetry while he was imprisoned in Japanese military police station(囚在日憲兵所口號)』 is a poem written while in a military police station, it shows his determined will to struggle even if he dies and not to survive wretchedly.

『Tell all over the country comrades before his death(告訣八域同志)』 is written in the prison to bid his last farewell to comrades from all over the country, it describes the cause of raising an army, the period of armed struggle, the record of struggle, the arrested situation, the feeling faced by the death penalty, and the ideology of struggle. In this article, he said that the cause of raising an army was that he could not stand the turbulence of conscience at a time when traitors were killing faithful and good people for no reason. He also said that he raised an army twice in 13 years, fought about 30 times, and killed more than 100 Japanese invaders. Lee Kang-nyeon had a serious sense of crisis about the situation in which humanity had disappeared, and he raised an army by being turbulent of conscience. Also, he was proud of dying for his country for the loyalty of Johnhwa Yangi(Revere China and expel the foreigners, 尊華攘夷) and he asked the remaining comrades to strengthen moral principles. This is the his consciousness of Wijung Chuksa(Protect Righteousness and Expel wickedness, 衛正斥邪).

In 『Ungang-yugo(雲岡遺稿)』, 15 manifestos are presented. His manifestos are based on clear ideology of Wijung Chuksa(Protect Righteousness and Expel wickedness, 衛正斥邪). They are the manifestos of encouraging military, weapons and military funds, of scolding Ito Hirobumi(伊藤博文) severely, the persuasion of criticizing sharply Iljinhoe(一進會) which had done all kinds of atrocities as informer of Japan, the notification of accusing Japanese invasion and informing the validity of liberation to consular offices of each country, and the article of informing the discipline of the army. Among them, for the purpose of recruiting the army has typicality as a manifesto.

**Keywords** Ungang(雲岡), Lee Kang-nyeon(李康季), Wijung Chuksa(Protect Righteousness and Expel wickedness, 衛正斥邪), Jecheon, the righteous Armies general, Armed struggle, Instigation.

